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자리 잊고 살면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⑤

圭峰云 心也者 冲虚妙粹 규봉은 심야자 충허묘수 炳煥靈明 無去無來 冥通三際 병환영명 무거무래 명통삼계 非中非外 洞澈十方 不生不滅 비중비외 통澈十方 불생불멸 豈四山之可畜 離性離相 豈四山之可畜 離性離相 기사산지가해 이성이상 奚五色之能盲 奚五色之能盲 해오색지능맹 故永明准心訣云 夫此心者 故永明准心訣云 夫此心者 家妙群靈而普會 爲萬法之王 家妙群靈而普會 爲萬法之王 三乘五性而異歸 作千聖之母 三乘五性而異歸 作千聖之母 獨尊獨貴 無北無傷 實大遺源 獨尊獨貴 無北無傷 實大遺源 獨尊獨귀 무비무주 실대도원 是眞法要 信之則三世諸佛同學 是眞法要 信之則三世諸佛同學 시진법요 신지즉삼세보살동학 蓋學此心也 三世諸佛同證 蓋學此心也 三世諸佛同證 개학차심야 삼세제불동증 蓋證此心也 一大藏教空顯 蓋證此心也 一大藏教空顯 개증차심야 일대장교전현 一切眾生迷妄 迷此心也 一切眾生迷妄 迷此心也

렇게 환하게 밝으며, 또 가고 올도 없으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다. 또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시방의 공간을 환하게 비추면서 생멸함이 없으니 어찌 사산(四山: 生, 老, 病, 死)이 해칠 수 있겠으며, 본질과 형상을 떠났으니 어찌 오색(五色)이 눈멀게 하겠는가 하였다. 그러므로 영명스님은 <유심결>에서 "무릇 이 마음이란 온갖 묘하고 신령스러운 것이 모여서 만법(萬法)의 왕이 되고, 삼승(三乘: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과 오성(五性: 무종성천제(無種性), 정성성문(定性聲聞), 정성연각(定性緣覺), 부정성(不定性), 보살성(菩薩性)이 다 그리로 돌아가서 모든 성현의 어머니가 된다. 마음은 홀로 존귀하여 견줄데도 없고 짝할 데도 없으니, 실로 큰 도의 근원이며 진실한 법의 핵심이다" 하였다. 이렇게 믿는다면 삼세의 보살이 다 함께 공부한 것도 이 마음을 배운 것이요, 삼세의 부처님이 다 함께 깨친

마음은 도의 근원이며 법의 핵심 납자들이 탐구하는 것도 이 마음

일체중생미망 개미차심야 一切行人發悟 蓋悟此心也 一切諸佛同證 蓋悟此心也 一切諸佛同證 蓋悟此心也 일체제조상전 개진차심야 天下納僧參訪 蓋參此心也 天下納僧參訪 蓋參此心也 천하납승참방 개참차심야 達此心則頭頭皆是 物物全彰 達此心則頭頭皆是 物物全彰 달차심즉두두개시 물물전장 迷此心則處處顛倒 念念痴狂 迷此心則處處顛倒 念念痴狂 미차심즉처처전도 염념치광 此體 是一切眾生 本有之佛性 此體 是一切眾生 本有之佛性 차체 시일체중생 본유지불성 乃一切世界生發根源 乃一切世界生發根源 내일체세계생발근원 故世尊無量壽久 善現願下忘言 故世尊無量壽久 善現願下忘言 고세존취불양구 선현안하망언 達摩少室壁觀 居士耶那社口 達摩少室壁觀 居士耶那社口 달마소실벽관 거사비야두구 悉悟發明此心妙體也 悉悟發明此心妙體也 실개발명차심묘체야 故初入禪門庭者 要先識此心體也 故初入禪門庭者 要先識此心體也 고초입조문정자 요선식차심체야

것도 이 마음을 깨친 것이요, 팔만대장경이 가르치고 드러낸 것도 이 마음을 드러낸 것이며, 일체중생이 어리석은 것도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이요, 모든 수행인이 깨달은 것도 이 마음을 깨달은 것이며, 모든 조사가 전한 것도 이 마음을 전한 것이며, 천하의 납자들이 탐구(參究)하며 찾아다닌 것도 이 마음을 공부하기 위함인 것을 알 것이다. 이 마음을 통달하면 온갖 것이 다 옳고 대하는 물건마다 온전히 그 가지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을 모르면 가는 곳마다 잘못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잘못된다. 이 진심의 알맹이는 일체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이요, 또 일체 세계가 발생하는 근원이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영취산에서 침묵하셨고, 선현 존자는 바위 아래서 말을 잊었고, 달마스님은 소림사(少林寺)에서 벽을 향해 앉았고, 유마거사는 비야리성(城)에서 입을 다물었던 것은 다 이 진심의 묘체(妙體)를 밝혀 드러낸 것이다. 김원각(시인)

또 규봉스님은 "마음은 깊고 텅 비었으면서도 묘하고 순수하며, 신령스

담월스님 (제천 백련사 조실)

處世間如虛空 如蓮華不着水 (처세간여허공 여연화불착수) 心清靜超於彼 稽首禮無上尊 (심정정초어피 계수에무상존)

세간생활하되 허공같이 비워서 걸림없게 하고, 연꽃이 더럽고 깨끗한 물에 젖지 않는 것 같이 하라.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장에되거나 구애받지 않으니, 자기의 부처에게 의지하라.

불자들은 항상 마음의 근원을 밝히고 성품의 근원을 찾는 '명심견성(明心見性)'의 주장자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천지만물은 모두가 마음으로 쫓아 건립되고 소탕되는 것이니 청정본연한 마음만 깨닫게 되면 우주와 인생의 근본진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의 지상과제도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서삼경을 무릎 꿇고 판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울수 있는 천재라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마음이란 넓히려면 허공을 삼키고도 남지만, 좁히면 바늘끝도 못기가 모 자랍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물질문명만 숭상한 나머지 현실생활에 직면하여 번민과 모순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팔면적으로 이 세계는 극도의 혼미가 거듭될 수밖에 없고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지요.

요즘은 경제기간인데 왜 이리도 돌아다니는 승려가 많은지요. 조계종단의 문제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질서가 잡힙니다. 옛날에는 경제기간에 무단으로 돌아다니는 스님은 때려쳐주어도 삼인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안거수행이 중요시한 거지요. 경제기간은 신심을 결속하고 절제하는 급속기간이예요.

불자들은 항상 나의 본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뺏겨 무리에 휩쓸리고 인과를 지으면 아무리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보았자 헛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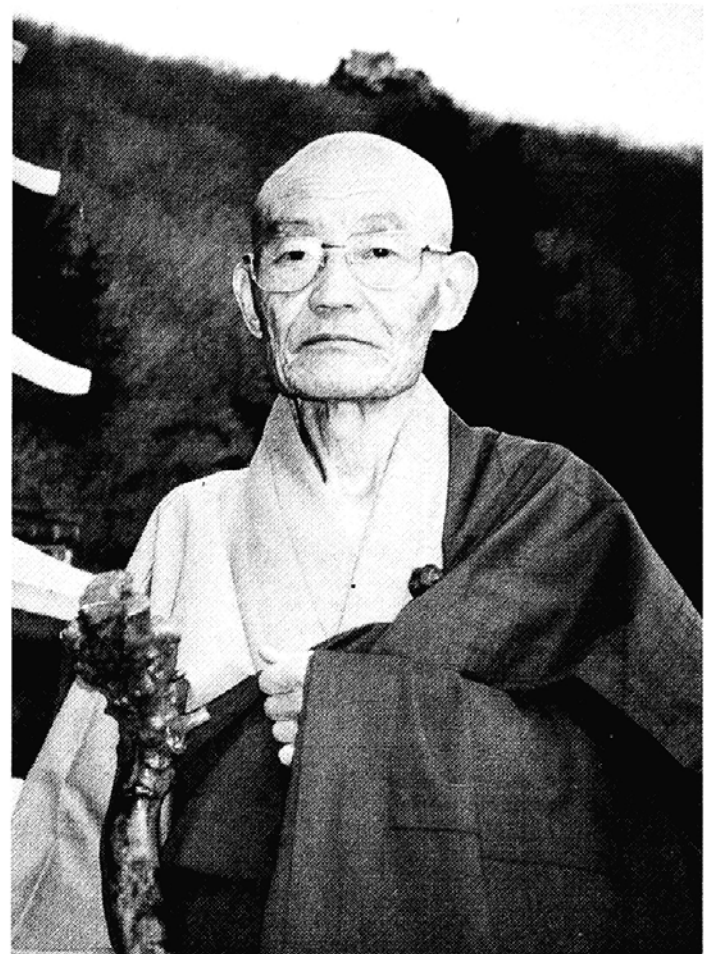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등재버리고 누구 위해 전전하며 종노릇하고 있는 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相)에만 집착하고 진리를 모르면 얼굴을 마주 대해도 천리같이 막히고, 마음을 비우고 도를 알면 천지가 한 집처럼 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남들을 탓할 것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들의 과보고 자기들이 지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사 백전검을 지날지라도 지은 죄업은 없어지지 않고 언

제든지 과보를 어김없이 받게되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금생에 자기의 본성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 깨달을 것입니까. 우주의 대도와 진리가 다 마음에 있습니다. 열심히 마음공부 해야 해요.

부처님의 45년 설법이 구름조각같이 많고 빗줄기처럼 많아서 수많은 경전을 이루었고, 여러 고승들의 경전해석이 수없이 많지만 다 옛사람들이 씌다가 뱉어 놓은 찌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글을 의지해서 마음과 힘을 허비하지만 깨닫고자 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깨달음이란 언어밖에 따로 전하며 마음으로 마음에 전하여 곧바로 사람마음을 가르쳐 스스

- 1924년 충남 청양 생
1936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월봉화상을 은사로 득도
1943년 보현사강원 대교과 졸업
1945년 서울 대원강원 수의과 졸업
1950년 가야총림 해인사강원 부산 범어사강원 강사
1961년 속초 신홍사주지
1966년 간성 건봉사주지
1970년 서울 칠보사주지
· 현 제천 백련사에 주석
· 저서<불자요람> <불법의 양식> <담월스님 수상집> 등



“걸어야 백년사는 인생살이 아웅다웅 싸울 시간없어요 언제 깨달을 것입니까”

로의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비결은 자기의 마음으로 스스로 닦아 저절로 깨닫는 것밖에 별 도리가 없어요.

나는 불연(佛緣)을 맺기위해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어릴적에 청양 정혜사를 다녀왔어요. 난생처음 절에 가서 부처님을 뵈었는데 너무나 환희심이 나서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 스님이 돼야겠다는 일념으로 길을 나섰지요. 서울까지 와서 어떤 장돌뱅이가 '스님' 시켜 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매회생활이었습

니다. 이성환이라는 분을 양아버지로 삼고 살았는데 저녁에는 다행히 글공부를 시켜줬어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구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에 속박되어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용기와 인내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단히 노력하면 삶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내마음을 잃고 있던 양아버지의 소개로 함경도 문천 청련사에 들어가다가 평양 영천암으로 공부하라고 보내서 갔는데 부전생활을 면치 못해요. 영천암에서 4~5개월 겨울을 흔

자보내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지스님에게 불공 시식소리를 배웠는데 <석문의법>을 한달 만에 암송하고 무상계를 10여분만에 다 외우니 주지스님께서 감탄하며 강원예 보내야겠다고 해요. 16세에 영명사에 가서 문공호스님을 은사로 양청우스님을 계사로 수계를 받았습니다.

강원으로 가기위해 다시 양아버지의 도움으로 평남 중화 고봉사를 찾았습니다. 주지는 김만성스님인데 묘향산 금성대 무영스님의 상좌였습니다. 만성스님은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데 보살과 함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냉천에 놀러온 사람들을 상대로 식당까지 운영했어요. 만성스님께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기하니 찾마디에 허락하는 겁니다. 만성스님은 매달 학비로 넉넉하게 10원을 주기로 하고 약천암의 비구니 안경옥스님을 불러 나를 강원졸업시까지 의복과 침구를 대라는 응답까지 받아왔습니다. 강원예 가기전에 영명사 법무스님에게

해·태·상·사·(주) 그린홈 매트

신년맛이 큰 세일 40%

국내 굴지의 수출 선도기업 해태상사(주)가 불자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건강제품.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돌침대의 건강효과와 침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첨단 맥반석 코팅 방법으로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 국내 최고 다섯가지 장점
· 온화한 온열감 - 34M 특수 카본열선에서 제공하는 점질효과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 양질의 원적외선 방사 - 원적외선 방사율이 가장 우수한 천연 맥반석만 사용합니다. 천연 맥반석을 무공해 돌침대 형태의 특수 코팅 공법으로 제조하여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하십시오. 원적외선은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유해 전자파 차단 - 100% 동성분의 동적물로 전자파를 차단하고 조절기로 전자파를 뽑아내 유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합니다. 부모님, 임산부, 아기까지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편안한 건강매트 - 국내에서 가장 크고 두껍게 제작하여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200 x 140 x 50, 2인용)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해 제품이 산뜻합니다.
· 경제성 -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신비의 약돌 맥반석을 사용하여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가 매우저렴하게 드는 경제적인 건강매트입니다.

사찰을 통한 단체구입 주문 (5장이상)을 받습니다.

- 단체 구입시 샘플을 원하시면 샘플을 보내 드립니다.
- 건강매트 수익금 중 일부는 불교 포교기금(노숙자 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① 구입문의: 물.부다피아 쇼핑몰 02)732-1522
② 특가가격: ₩660,000 ₩398,000
· 사용중 제품에 불만이 있으시면 1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합니다.
· A/S기간:1년 TEL. 02)613-8098
해태상사(주) 그린홈매트
제조원 : (주)MCI



천연 맥반석 돌판 · 다량의 원적외선 방사 · 돌판크기 120 X 160
그린홈 매트
침단 온도조절기 · 전자파 차단 필지